

‘손흥민&케인’처럼…K리그 영혼의 단짝은?



## 3골 합작·대표팀 첫 승선 송민규-강상우 ‘환상 콤비’

라스·무릴로 3골 합작…수원FC 7위 견인  
김보경은 일류첸코·한교원에 나란히 3AS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함께 뛰는 손흥민(29)과 해리 케인(28)은 ‘영혼의 단짝’으로 불린다. 눈빛만 봐도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이들은 물 흐르듯 매끄럽게 골을 만든다. 2020~2021시즌 둘이 14골을 합작했는데, 이는 EPL 단일시즌 최다기록이다.

K리그에서 역대 최고의 콤비로는 ‘데얀+몰리나’가 꼽힌다. 이들은 FC서울에서 3년간(2011~2013년) 함께 지내며 ‘데몰리션’이란 애칭으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데얀이 몰리나의 도움을 받아 넣은 골은 21골인데, 이는 역대 K리그 최다기록이다. 몰리나가 데얀의 패스를 받아 성공한 6골을 더하면 둘은 27골이나 합작했다.

그렇다면 올 시즌 최고의 황금콤비는 누구일까.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K리그1(1부) 19라운드까지 송민규(골)-강상우(도움), 임상협(골)-신진호(도움·이상 포항 스틸러스), 한교원(골)-김보경(도움), 일류첸코(골)-김보경(도움·이상 전북 현대), 라스(골)-무릴로(도움·수원FC) 등 5쌍이 나란히 3골을 합작해 최고를 기록했다.

왼쪽 풀백 강상우와 왼쪽 윙어 송민규는 포항이 자랑하는 조합이다. 지난 시즌 도중 군 제대 후 복귀한 강상우는 포항에서만 7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그 중 4개가 송민규에게 향했다. 이번 시즌도 비슷한 흐름이다. 송민규의 7골 중 3골이 강상우의 도움이다. 강상우는 5도움 중 3개를 송민규에게 배달했다. 눈에 띄는 것은 3골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강상우가 올리고 송민규가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이런 콤비플레이 덕분에 둘은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도 함께 발탁됐다.

포항의 또 다른 듀오 임상협-신진호의 호흡도 돋보인다. 임상협은 이번 시즌 6골 중 절반을 신진호의 도움으로 뽑았다.

외국인 듀오 중 으뜸은 라스와 무릴로다. 최근 수원FC의 상승세를 이끈 주역들이다. 제공원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라스는 3경기 연속골을 폭발하며 득점랭킹 3위(8골)로 올라섰다. 날카로운 돌파와 드리블, 패스가 돋보이는 무릴로는 도움 6개로 랭킹 2위다. 라스는 무릴로에게 3개의 도움을 받았고, 2개의 도움을 줬다. 이들의 활약으로 수원FC는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7위까지 올랐다.

김보경은 일류첸코와 한교원의 득점에 깊이 관여했다. 나란히 3개씩의 도움을 주며 공격형 미드필더의 진가를 보여줬다. 도움 랭킹은 선두(8개)다. 김보경 덕분에 일류첸코는 9골, 한교원은 6골로 득점 부문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하지만 최근 부진한 팀 성적 탓에 이들의 기록도 빛이 바랬다.

이들 이외에도 무릴로(골)-정동호(도움), 조유민(골)-무릴로(도움·이상 수원FC), 한교원(골)-이승기(도움·전북), 김진혁(골)-황순민(도움·대구FC), 김진희(골)-고승범(도움·수원 삼성) 등은 2골을 합작한 콤비들이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 2021시즌 K리그1 ‘골+도움’ 합작 현황

| 합작 득점 | 구단   | 골    | 도움  |
|-------|------|------|-----|
| 3골    | 전북   | 한교원  | 김보경 |
|       | 전북   | 일류첸코 | 김보경 |
|       | 포항   | 임상협  | 신진호 |
|       | 포항   | 송민규  | 강상우 |
|       | 수원FC | 라스   | 무릴로 |
| 2골    | 수원FC | 무릴로  | 정동호 |
|       | 수원FC | 무릴로  | 라스  |
|       | 수원FC | 조유민  | 무릴로 |
|       | 전북   | 한교원  | 이승기 |
|       | 대구   | 김진혁  | 황순민 |
|       | 수원   | 김진희  | 고승범 |

5일 튀르키예전·9일 스리랑카전·13일 레바논전…WC 2차예선 카운트다운

# 황의조·손흥민, 화끈한 6월을 부탁해!



동갑내기 축구스타 황의조(왼쪽)와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또 뒀다. 아시안게임과 A매치에서 환상의 호흡을 뽐냈던 콤비가 이번엔 눈길을 보내고 있는 곳은 5일부터 13일까지 국내에서 펼쳐질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다. 결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진행 중인 A대표팀 훈련에 참가한 황의조와 손흥민.



환상의 호흡을 뽐냈던 콤비가 이번엔 눈길을 보내고 있는 곳은 5일부터 13일까지 국내에서 펼쳐질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다. 결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진행 중인 A대표팀 훈련에 참가한 황의조와 손흥민.

A매치평가전 4골 합작 등 찰떡호흡  
손흥민 올 시즌 22골…최고 골 감각  
황의조 리그앙 이번 시즌 12골 펄펄  
“서로가 어떤 것 원하는지 잘 안다”

3월 원정 한·일전 참사를 겪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의 축구국가대표팀은 찬란하고 화끈한 6월을 꿈꾸고 있다. 최고의 퍼포먼스, 최상의 성과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의지다.

A대표팀은 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튀르키예니스탄과 경기를 시작으로 스리랑카(9일), 레바논(13일)과 차례로 격돌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1위로 최종예선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 1992년생 동갑내기인 한국축구 최강의 원투펀치도 ‘결전의 날’을 단단히 버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등의 문제로 한·일전에 참여하지 못한 채 멀리서 참패 소식을 전해들은 공격 콤비이기에 더욱 투쟁심이 불타오른다. 3전승으로 승점 9를 획득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 면에서도 압도적인 A대표팀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손발을 맞추기 시작한 둘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을 기점으로 한국축구의 최전선을 이끌었다. 대개 황의조가 원톱으로 나서고, 손흥민이 공격 2선(주로

측면)에 배치되는 형태가 많았지만 때로는 투톱을 이뤄 상대 진영을 흔들었다.

당연히 골을 합작한 경우도 많았다. 23세 이하(U-23) 대표팀 와일드카드로 호흡을 맞춘 AG에선 3골, A매치 평가전에선 4골을 함께 만들었는데 AG에서의 1골을 제외한 득점이 ‘도움미’ 손흥민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치러진 평가전 시리즈(멕시코~카타르)에서도 2골을 합작했다.

황의조는 “어릴 때부터 호흡하면서 서로가 어떤 것을 잘하고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팀 훈련부터 손발을 잘 맞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 표팀이 다시 뭉쳤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더구나 둘의 2020~2021시즌은 눈부

셨다. 손흥민은 51차례의 공식경기에서 무려 22골·17도움을 올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선 17골·10도움으로, 차μπ군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독일) 소속으로 세운 ‘한국선수 유럽리그 단일시즌 최다골’과 타이틀을 이뤘고, 토트넘 사상 첫 2시즌 연속 리그 10골·10도움도 달성했다.

2019~2020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리그앙(1부) 보르도로 이적한 황의조는 데뷔 시즌 6골·2도움에 이어 지난 시즌에는 12골·3도움으로 자신의 유럽무대 한 시즌 최다골을 작성했다.

유럽무대에서 보여준 가공할 기세를 손흥민-황의조 콤비가 월드컵 여정에서도 계속 잊기를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이적 앞둔 이재성 “EPL·분데스리가서 뛰고 싶다”

“이번달 안에 거취 결정 될듯  
지금은 대표팀 소집에만 집중”

독일 분데스리가2(2부) 홀슈타인 킬과 계약이 끝난 이재성(29)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나 분데스리가(1부)에서 뛰고 싶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이재성은 1일 대한축구협회가 유튜브로 진행한 공식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보낸 3시즌은 유럽무대에 나를 알릴 기회였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재성

이재성(29·홀슈타인 킬)은 이번 시즌 정구리그 19골(포함)을 터트리며 핵심 공격자원으로 활약했다.

홀슈타인 킬은 이번 시즌 정구리그 3위로 승강 플레이오프(PO)에 나섰지만 승격

2018년 7월 전북 현대를 떠나 독일로 건너간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은 홀슈타인 킬 소속으로 3시즌 동안 104경기(정구리그 93경기 포함)에 출장해 23골(정구리그 19골 포함)을 터트리며 핵심 공격자원으로 활약했다.

홀슈타인 킬은 이번 시즌 정구리그 3위로 승강 플레이오프(PO)에 나섰지만 승격

에 실패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 그는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이적을 준비 중이다. 그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마음은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를 선호한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이어 “지금은 대표팀 소집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소집이 끝나면 이번 달 안에 거취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혔다.

이번 시즌 헤더 골(2골)과 헤더 도움이 눈에 띈다는 질문에 그는 “공교롭게도 머리를 기르면서 헤딩 기회가 많이 찾아왔다”고 웃은 뒤 “전술적으로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연습을 많이 했고, 실제 상황이 경

## ‘김학범호’ 정우영, “최상의 조?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

“감독님 조언해주신 몸싸움 보완  
내 장점 스피드로 눈도장 받을 것”

“색깔 상관없이 메달만 바라본다!”

정우영(22·프라이부르크)이 7월 도쿄올림픽 시상대를 꿈꾸고 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에 소집돼 제주 서귀포에서 진행되는 6월 강화훈련에 참여한 정우영은 1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좋은 경기력으로 메달을 따고 싶다. 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정우영

마치자마자 귀국해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머물며 컨디션을

다졌다.

정우영은 2020~202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6경기에 출전해 4골을 터트리며 나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달콤한 휴식은 없다. 시즌을 마무리하며 귀국해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머물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전날(5월 31일) 제주도로 이동해 올림픽대표팀 동료들과 만났다.

물론 28명이 참여한 이번 소집이 끝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다. 올림픽 최종엔트리는 18명이다. 와일드카드 3장을 제외하면 15명으로 줄어든다. 확실하고 뚜렷하게 경쟁력을 보여줘야 도쿄행이 가능하다. 가나와 2차례 평가전(12, 15일·제주월드컵경기장)을 거쳐 최종 18명이 가려진다.

정우영은 “최종엔트리에 포함되면 당연히 기쁠 것이다. (이번 소집에서) 감독님이

기장에서 나와서 뿌듯했다. 헤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머리를 기르는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미용실에 가지 못해 기르게 됐다”며 “유럽에서 외로운 시간을 잘 버티자는 의미로 기르고 있다. 많은 분이 좋아해주셔서 즐겁게 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성은 동갑내기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에 대해 “서로에게 힘과 자극이 된다. 손흥민과 황의조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만나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조연한 몸싸움 보완 등에 대해 많이 노력했다. 여기에 내 장점인 스피드를 잘 살리면 감독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본선 조 편성을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온두라스, 뉴질랜드, 루마니아와 8강행을 진출을 다룬다. 프랑스, 멕시코 등 경쟁한 강호들을 전부 피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상대국들도 ‘최상의 조’라며 만족해한다. 정우영은 “전통의 우승 후보들도 강하지만 우리와 만날 상대들도 충분히 강하다. 탄탄한 수비를 펼치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계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